

기독교 교육에서 비유 활용 방안

강이철(경북대 교육학)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4절)

비유는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성경에 제시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분의 교훈 중 35%가 비유로 기록되어있다. 본 글은 비유의 교육적 가치를 규명해 보기 위하여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종류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의 형식과 목적을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비유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업설계 모형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 비유의 교육적 특성

1. 비유의 종류

비유란 사물의 의미가 다르게 전이되는 것을 말하는 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비겨 표현함으로써 목적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이다. 이는 한 대상이 또 다른 것으로 불려져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비유적 관계로 표현된다. 비유가 성립하려면 어떤 내용(topic)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혀 다른 친숙한 내용(vehicle)을 빌어 두 사물 사이에 납득할 만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찾아내야 한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환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직유는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직유는 두 대상의 유사성을 토대로 하여 서술적인 접사 ‘~처럼, ~같이, ~인 듯, ~같은’과 같은 말들을 매개로 해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비유 형식이다. 은유(隱喩: Metaphor)란 말은 희랍어 metapherein에서 왔는데, 이 말은 ‘over’라는 의미의 mata와 ‘to bear’라는 의미의 pherein에서 연유되었다. 즉 은유란 비유적인 용어으로써 어떠한 객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은유는 Aristotle 이후 여러 세기동안 논의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철학자, 언어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은유란 모든 언어에 공존하며,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편이 되는 개념체계이다. 환유는 어떤 사물을 그 속성, 특징,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칭으로 대신하는 표현법으로 ‘백발’로 ‘노인’, ‘빈수레’로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것이 그 예이고, 제유는 어떤 사물을 그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약주’로 ‘술’을 뜻하는 것이 그 예이다. 풍유는 원관념을 완전히 뒤에 숨기고 보조 관념만으로 뒤에 숨겨진 본래의 의미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풍자적, 우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속담, 격언, 우화, 풍자시, 풍자 소설 등에 많이 쓰이며, 보조 관념이 흥미있고 재치가 있어야 한다. 의인은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에 인격을 부여해서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게 하는 표현법으로, 감정을 이입(移入)시키거나 정서를 투사(投射)하는 방법이다.

2. 창조공학(시넵틱스) 방법

‘Synectics’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희랍어의 ‘syneticos’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별개의 요소들을 함께 맞추어 넣는다’, ‘서로 다른 것을 함께 이해한다’, ‘명백하게 상이한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함께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창조해내는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수 방법이다. 시넵틱스는 “다르거나 명백하게 관련없는 요소의 결합”이다(Gordon & Poze, 1980a, 1980b). 시넵틱스 방법은 다른 요소들을 함께 묶는 의식적인 방법으로서, 유추와 은유에 기반한 기술이다. 시넵틱스 방법의 창시자는 예전에 교사, 조련사(말), 구조원, 앰블런스 운전사, 스키 지도자, 범선항해자, 대학강사, 돼지 사육사였던 William J. J. Gordon이다. 시넵틱스를 통한 발명품의 예는

프링글스 감자칩, 쓰레기 분쇄 압축기, 전기 나이프, NASA의 우주복 마감장치,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젓병, 각 얼음 제조기, Sunoco의 옥탄 가스 펌프 등이 있다.

Gordon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비유적인 사고 전략을 확인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Gordon은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유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시넵틱스의 목적은 문제 해결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비유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Gordon은 직접비유, 의인비유, 공상비유, 상징비유의 네가지 시넵틱스의 종류를 제안하고 있다.

1) 직접비유

직접비유방법을 사용하는 문제해결자는 관련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고안한다. 어떤 종류의 비유든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특히 권장된다. 동물, 새, 꽃, 곤충, 벌레, 뱀 등은 어떻게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예를 들어 Gordon과 Poze는 개인이 비유적 연결을 시도할 때 -이 상황이 그 상황과 같다는 것을 보면서-문명화과정 그 자체가 진전되어진다고 생각한다. 굶고 있는 원시인이 날카로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했다고 상상해 보아라. 도처에 물고기가 있으나 원시인은 가족과 친구에게 줄 만큼의 많이 양을 찢어서 잡을 수는 없다. 원시인은 작은 파리 무리가 거미줄에 걸린 것을 보고, 그 즉시 비유적인 연결을 하고 집단으로 돌아가 이웃에게 해먹을 가져오게 한 뒤 거미줄 모양의 어망으로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해먹을 사용한다. 다른 원시인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위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뱀을 보고 벨트를 고안했을 것이다. 양말이 묶는 데는 작은 누룩뱀이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것이다(Gordon과 Poze, 1972).

Gordon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Tripoli 항구를 막고 있는 침몰한 배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비상 구조원이었다. 소속 대령은 정원에서 진흙덩어리를 긁어모으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훼손된 배를 산산조각으로 폭파한 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긁어모을 것을 제안했다.

한 시넵틱스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는 포테이토칩을 부러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포장하여 운송경비를 줄이는 것이다. 젖은(촉촉한) 잎들 - 부러뜨리지 않고 아담하게 함께 포장하는 것-이 프링글스 포테이토칩을 차곡차곡 쌓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유를 제공하게 되었다(Gordon과 Poze, 1980b).

어떤 종류의 문제든 직접 비유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isconsin 대학에서 퇴직한 사람을 위한 창의성 워크숍은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것으로 직접비유 접근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동물, 식물, 새 등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가 된다. 창출된 아이디어들로는 스텝크 냄새가 나는 스프레이, 강도를 깜짝 놀래주는 뱀 얼굴 마스크, 경찰에게 은밀하게 통보하는 전기장치, 경찰복장으로 위장하기 등이 포함된다.

2) 의인비유

풍선껌인 당신은 사탕가게 진열대에 풍선껌 친구들과 함께 통 안에 놓여져 있다. 작은 소년이 걸어와서는 카운터 앞에서 500원을 지불하고 당신을 가리킨다. 기분이 어떨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당신은 작은 소년이 코로 쿵쿵거리는 것을 알아챈다. 당장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의인비유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상적으로 그 문제의 일부분이 되어감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견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친구를 위한 근사한 저녁식사라면 어떨겠느냐? 혹은 아주 좋은 마루걸레라면? 만약 당신이 수표책이라면 분실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시넵틱스 문제 해결 회의에서, 집단 구성원들(지성적인 어른)은 저수지 아래로부터 기름이 스며든 암석의 정확한 표본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자신이 신속하게 증가하는, 작고 무리지어 있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을 상상했다. Einstein은 우주를 관통하는 빠른 빛과 같은 여행을 상상할 때 의인비유 방법을 사용했고 이 방법은 상대성 이론의 창출에 크게 공헌했다.

3) 공상비유

공상비유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자연스럽지만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해결방안으로 생각한다. 대표적인 개발사례로서, 우주복의 지퍼를 발명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최대한의 공상을 발휘해서 우주복의 밀폐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집단 구성원은 완벽한 밀폐가 이루어지도록

2열의 곤충이 서로 악수하는 상황을 공상적으로 제안했다. 결국 이 공상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를 개발하게 해 주었다.

공상비유 방법은 이상적이고 완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어떻게 탈 것 자체가 스스로를 추진하는 기능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레기를 사라지게 하는 마법 배수로를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생각해 보라: 어떻게 냉장고 그 자체가 서리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다림질이 필요없는 섬유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오븐을 그 자체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완전하고 환상적인 해결을 찾는 전략은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기반을 둔다.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4) 상징 비유

네 번째 시넥틱스 기술은 상징 비유로 불려진다. 다른 이름은 “압축된 갈등” 그리고 “모순어법”이다. 전략은 “주의깊은 서두름” 혹은 “온화한 터프함”과 같은 자가당착으로 보이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 혹은 모순어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압축된 갈등은 특별한 문제와 관련되고 아이디어를 자극한다. 예를 들면, “주의깊은 서두름”이란 큰 학교 건물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극하기 위해서 교육자나 소방관이 고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온화한 터프함”은 자동차 타이어, 내구성있는 섬유, 장거리 자전거를 디자인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극한다.

한 시넥틱스 회의에서, 각 얼음 제조기를 디자인 하는 문제는 “얼음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제빙그릇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기 제기되었다. 이 정의는 유리창을 깨는 소년의 비유를 제안한다. 소년이 유리창을 깬다는 내용의 책 제목은 건전한 파괴, 옳은 그림, 지적인 실수, 이성적 폭력 등을 포함한다. 이성적 폭력의 예에서 전기뱀장어를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전기뱀장어는 적에게 충격을 줌으로써 이성적으로 방어하는 성질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런 전기뱀장어의 성질을 고려하여, 화식 약 20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갈 경우 수축하는 물질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이용하여 각 얼음을 떼내는 물질을 제작하게 되었다.

II. 예수의 비유¹⁾

1. 비유의 성격

예수님이 대중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방법은 참으로 독특하다. 그 중 가장 특이한 것이 “비유법”이다. 비유의 생명은 그 상징성에 있다. 주님은 사물과 사건을 통해 복음을 ‘개념화’하여 그 상징성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뇌 속에 안착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의 지성을 민감하게 하는 경향까지 있다. 예수님과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사물을 볼 때 예사롭게 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의미, 철학적 사고를 가미하게 된다. 비유법은 사람의 지성을 깊게 한다. 특히 천국을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서창호 www.edu.co.kr/john316](http://www.edu.co.kr/john316)).

비유란 하나의 신학적, 영적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상황을 빌려서 예증하는 교육방편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셨다”(마태복음 13:35)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강조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가장 심오한 교육가이신 예수님께서서 “진리를 설득하는 비유”를 듣는 감격을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겠는가!(이동원, 1983).

비유를 뜻하는 “parable”이란 말은 하나를 다른 것 앞이나 옆에 내미는 것(to put forth one thing before or beside another)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기인했으며, 비유를 일컬어 “말하자면 그 앞에 던져진

1) J. Jeremias는 신약성서의 양식비평적 연구가 복음서의 비유를 은유(metaphor), 비사(similitude), 우화(allegory), 비유(parable), 예화(illustration), 등으로 분류하여 각자의 특성을 분간하려고 하지만 이 용어들의 구약적 배경을 알면 그런 엄격한 구별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한다(Joachim Jeremias, 1954, The Parables of Jesus, London, SCM Press).

진리의 그림자“라고 묘사하고 있다(이장림, 1977, p. 7). 비유는 하나의 영적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자연적인 사물의 실질적인 질서를 범하지 않는 점에서 우화(fable)와 다르며 여기엔 비유에 있어서 항상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측면, 곧 보다 깊은 의미와 외계의 상징 간에 무의식적인 혼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화와도 다르며, 이것은 우연적일 뿐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줄곧 비유적인 상징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격언(proverb)과도 다르며-이것은 하나를 다른 것에 비교(비유)하면서도 풍유와 같이 하나의 속성을 다른 것에 이속(移屬)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풍유(allegory)와도 다른 것이다(이장림, 1977, p. 10).

예수는 일상생활의 친숙한 상황을 예증함으로써 말하려는 요점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말 또는 이야기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신약에서 46회, 구약에서 15회 언급됐는데 예수께서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 그가 사역하던 중 어느 때에는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 적도 있었다(마13:34). 예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너무 뜻밖이어서 제자들이 그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를 묻기까지 했다(마13:10).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의 가치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영적이며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동시에 다른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국민일보 기독교어).

예수님의 비유 설교 모음

제목	성경구절
선한 사마라이 인	눅 10:25~37
가라지	마 13:24~30
기도	눅 11:1~8
무화과나무	눅 13:6~9
밤중에 찾아온 벗	눅 11:5~13
겨자씨	마 13:31~32
누룩	마 13:33~
감추인 보화	마 13:44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마 13:45~46
잃은 양	눅15:1~17
잃어버린 아들	눅 15:1~32
잔치	눅 14:15~24
잃은 양	눅 15:4~6
어리석은 부자	눅 12:16~21
열매없는 무화과	눅 13:6~9
잔치집 상석	눅 14:1~14
망대건축, 전쟁하는 임금	눅 14:25~33
잃은 양과 은전	눅 15:1~10
보화	마 13:44~
진주	마 13:45~46
그물	마 13:47~50
두 빛진자	마 18:21~35
요나	마 16:1~4
연자 맺들	마 18:1~14
무자비한 종	마 18:23~35
기도의 비유2	눅 18:1~14
열므나	눅 19:11~27
알곡과 가라지	마 13:18~43
겨자	마 13:31~32

제목	성경구절
탕자	눅 15:11~32
잔치	눅 15:15~24
포도원 품꾼	마 20:1~16
두 아들	마 21:28~32
달란트	마 25:14~30
양과 염소	마 25:31~45
겨자씨	마 13:31~33
빛진 종	마 18:21~35
감추인 보화	마 13:44~46
그물	마 13:47~50
불의한 청지기	눅 16:1~9
부자와 나사로	눅 16:19~31
악한 농부	마 21:33~41
혼인 잔치	마 22:1~14
좁과 동록, 도적	마 6:19~21
티와 들보	마 7:1~5
열쳐녀	마 25:1~13
달란트	마 25:14~30
무익한 종	눅 17:5~10
므나	눅 18:12~27
양과 염소	마 25:31~46
목자 없는 양	마 9:35~38
낱은 옷과 낱은 부대	마 9:9~17
불의한 재판관	눅 18:1~8
바리새인과 세리	눅 18:9~14
씨 뿌리는 자	마 13:1~9
해산하는 여인	요 16:16~24
눅뱌	요 3:14~17

바울의 비유 설교

제목	성경구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롬 5:12~21
남편에게 매인 여인	롬 7:1~6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롬 11:13~24
양자됨의 비유	롬 8:12~18
지혜로운 건축자	고전 13:10~15

제목	성경구절
경기자의 비유(2)	빌 3:12~16
두 여인의 비유	갈 4:21~31
농사 원리의 비유	갈 6:7~9
아비와 그 자녀	고전 4:14~17
동학선생	갈 3:23~29

하나님의 성전	고전 3:16,17	해산의 수고	갈 4:17~20
하나님의 밭과 농부	고전 3:5~9	신랑 신부 비유	엡 5:22~33
그리스도의 사신	고후 5:20,21	전신갑주 비유	엡 6:10~17
그리스도의 일꾼	고전 4:1~5	옷 입음	엡 4:17~24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12~17	파선한 믿음	딤후 1:18~20
그리스도의 편지	고후 3:1~6	자유의 종	롬 6:15~23
질그릇 인생	고후 4:7~11	열매 비유	갈 5:19~24
큰 집 그릇들	딤후 2:19~21	거울 비유	고전 10:1~11
군인됨의 비유	딤후 2:1~4	할례의 비유	롬 4:1~11
경기자의 비유(1)	고전 9:24~27	머리되신 그리스도	엡 4:13~16

2. 비유의 초점 : 하나님 나라

예수의 가르침은 그의 천국비유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산상수훈은 종교적 윤리적으로 중요한 통찰이지만 단편적인데 비해 천국 비유는 그가 추구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천국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씨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포도나무 비유들은 생명과 자유의 연대성을 보여주는 내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천국비유는 '성기성물'(成己成物, 나를 이룸과 만물을 이룸이 맞물려 있다)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정대현, 2002).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유를 직접 들은 청중과 달리-아마도 그들은 비유의 맥락과 핵심을 즉각 이해했을 것이다-우리는 종종 핵심을 놓친다. 물론 우리도 비유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상황과 비유의 문학적 맥락을 연구함으로써 비유의 핵심 주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상천외한 신선함이나 예측할 수 없는 뒤엎힘 등의 묘미를 완전히 맛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공부하는 것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유는 1세기의 청취자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한다. 비유를 통해 최대한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비유가 과연 무엇인지, 비유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비유는 확장된 은유(metaphor)이다. 그것은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재능 있는 교사의, 순발력 넘치며 재기로 가득 찬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이 방면에서 재능있는 교사였음에 틀림없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의 지적 수준이나 생활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잘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1세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일상의 소재 속에서 가르침을 이끌어 내셨다. 잃어버린 동전, 양과 목자, 신랑 신부 이야기 등이 바로 그런 소재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영토나 지역이 아니라 다스림 혹은 다스리는 권위 그 자체를 말한다. 즉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질병과 귀신 그리고 자연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조차 다스림을 보여 주셨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과는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진리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문이 반역과 죄 때문에 꼭꼭 닫혀 있으므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생생한 표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골 깊은 잘못을 범하게 할 수 있다(김성녀, 1996).

3. 비유 사용 이유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예수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슈타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신득렬, 2001, pp. 202-203). ①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을 외인들로부터 숨기기 위한 것이다(마가 4:10-12). 예수가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② 제자들을 물론 외인들에게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③ 듣는 사람들의 적의를 없애려는 의도였다. 사무엘(하) 12:1-4에 사무엘이 다윗의 간음 행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비유로 설득한 것과 같은 원리란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생생한 기억과 이해’에 주목해보면 비유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한편의 이야기는 그 기억 시간이 단순한 낱말이나 어구 혹은 경구에 비해 길다. Horne은 예수가 사용한 비유의 출처를 조사하여 사물을 이용한 비유 16개(26%), 식물을 이용한 비유 7개(11.5%), 동물을 이용한 비유 4개(7%), 사람을 이용한 비유 34개(55.5%)라고 밝혔다. 이로 보아 예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인문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Horne, 1920/1990, p. 130). 즉 예수가 사용한 비유들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는 이미 아는 것을 활용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 속 교훈은, 들을 당시 그 의미를 잘 몰라도 나중에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의미를 찾아내게 된다. 물론 제자들도 비유의 의미를 몰라 예수에게 비유의 뜻을 물은 적이 있다(마가 4:10). 하지만 “나중에는 알리라”(요한 13:7)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가? ① 비유는 이해가 쉽다. 비유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은 모두 상징성이 있다. ② 비유는 기억이 쉽다. 비유는 전이 효과와 파지력이 뛰어나며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이므로 이미 배우는 대상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물이나 사건이 떠오를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도 함께 기억될 수 있어서 기억이 쉽다. 이것은 주님께서 귀한 가르침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비유는 가르침의 활동이 경제적이고 수월하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다. 그 사물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면 족하다(서창호 www.edu.co.kr/john316).

비유는 그 이야기를 통해 의미전달에 목적을 두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하여 주로 천국에 대하여, 사람이 관심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예수의 비유는 이야기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씨앗의 역할을 하였으며,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그 의미대로 살려는 헌신하는 마음을 자극하였다. 또한 예수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여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서창호, 2003).

예수께서는 논증이나 논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으나 그가 가르치신 많은 비유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현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대교 교사들의 매마른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가르쳤었고 이것으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다. 예수의 비유는 예술적으로 표현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이해되며, 특히 기독교적 문제에 대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기 쉽고 성서 교유의 방향을 벗어나서 문화나 인간적 평면에서 이해되기 쉽다(전경연, 1980, p. i).

예수께서 비유를 많이 쓰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천국의 비밀을 듣는 자들이 집으로 가서도 비유의 요점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②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 진리에 관하여 냉담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수단도 되었고, ③ 신령한 일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심판으로서 일부러 감추기 위함이기도 하며, ④ 비유가 진리를 구체화시키기 때문인데, 추상적 관념을 깨닫기는 어려우나 만일 “이것이 꽃이다. 이것은 사람이다”하면 알기 쉬운 것 같이 비유는 진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알기 쉽도록 함이 특색인 것이다. ⑤ 비유는 취미는 이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제일 효과적이다. 비유는 진리를 이야기로 나타내는 것이다. ⑥ 비유는 듣는 자들에게 진리를 찾도록 만든다. 진리는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해야 한다. 자기가 발견하지 않고 전해서 들은 진리는 의미가 없고 또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를 좋아한다. 소박한 자나 세련된 자나 다 이야기를 좋아한다. 비유는 변론보다 알아듣기 쉽고 잊혀지지 않는다. 랍비들도 비유를 사용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정성을 가지지는 못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 비유들은 우리의 과학과 기술보다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이순경, 1973, p. 10).

이한수(1991, pp. 25-26)는 예수의 교훈 방법으로서의 비유들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예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예증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였다. ② 비유는 예수의 사역과 인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의 메시지를 반대하려는 위인들에게 그의 교훈을 은폐시키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③ 예수의 비유들은 대부분 적대적인 상황에서 말해진 논쟁의 무기이다. ④ 비유들은 본질적으로 예수의 자기 증언들이며 자기 계시의 표현이다.

비유는 진리의 구슬을 논리의 줄에 꿰어 놓은 것 같은 것이 아니고, 무수히 흐르는 광선을 렌즈에 통일시켜 한 초점에 모아 목적물을 태우는 것 같이 모든 배경과 배역을 통하여 집중된 점을 가지는 것이

다. 이것을 제3의 비교점(tertiary comparison)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의 전 주의를 끌어들여 듣는 사람을 그 포장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제야 그 안에 감추인 무엇을 터뜨려 끄적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 듣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듣는 자는 그 포장을 벗어 알 수 없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찾고 있소”라는 말씀이 울려 나올 형세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에 끌려 들어가는 중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나 생활방도에 대결한 하나님의 사상과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전경연, 1980, p. 38).

4. 비유의 해석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분의 교훈들 중의 35%가 비유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사회의 상황과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역사적 삶의 정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분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던 팔레스타인의 지역적,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풍토와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비유들을 창시하신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 우리는 비유들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어떤 비유들은 단순하여 뜻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비유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유들의 헬라어 원문을 올바르게 번역함으로써 원래의 의미들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비유들을 지나치게 알레고리적(allegorical)으로만 해석하면, 임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비유들의 원래 의미들을 깨달아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래의 목소리를 듣고 비유들의 의미들을 올바르게 찾아내야 한다(윤승은, 2003).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설화 형식의 비유: 이 형식에서는 “하늘 나라는 이와 같다” 등의 서론이 없이 그저 비유로써 말하고자 하는 줄기가 뚜렷하다. ② 단순한 비유: 여기에 해당되는 비유는 전부가 “마치 이와 같다”, “그와 같이” 등등의 비교의 형식이나 또는 질문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서론이 시작되는 비유이다. ③ 짧은 경구 형식의 비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간결하게 일러 줌으로 듣는 사람이 즉시 자기 입장이나, 놓여진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형식인데 이 경구 형식의 비유가 보통 비유와 다른 점은 비교의 요소가 없는 점이며 설화 형식의 비유와의 차이는 매우 짧다는 점이다(이순경, 1973, p. 8).

예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꼭 그것을 해석하지는 않았다. 어떤 비유에 대해서는 열쇠를 주시기도 하셨다. 비유를 사용하셨을 경우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캐물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할 때 만족스러운 답을 주셨다(이종태, 1982, p. 119). 이한수(1991)는 비유해석의 방법론들로 알레고리적 해석방법, 역사-비평적 해석방법, 미학적 해석방법, 신해석학적 해석방법, 실존주의적 해석방법, 구조주의적 해석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비유해석 방법으로 Stein(1988)은 ①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중심 요점을 찾으라. ② 비유가 가르쳐진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③ 복음서 기자들이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이해하라. ④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라(pp. 127-145) 등을 제안하고 있다.

비유는 언제나 비밀에 이르는 문이다. 만일 인간이 그 표상을 고찰하고 탐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대답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비유들은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다(김진우, 1994, p. 16).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고 결론에 있다. 모든 결말이 마지막 인물, 마지막 행위 혹은 마지막 말씀에 집결된다. 그 구성에 있어 독특한 방식은 소위 마지막 강조라 할 수 있겠다(Hunter, 1971, p. 12).

III. 교수-학습 설계 방안

일반적으로 비유는 모든 유형의 지식을 가르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비유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업 설계방안을 제안한다.

<수업설계에서 비유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

1. 비유를 선정하라.
2. 비유를 강조하라.
3. 맥락이 확립되도록 보장하라
4. 적합하다면, 전달수단이나 논제를 위한 심상 정보를 제공하라.
5. 논제와 전달수단 간의 유사성/차이점을 강조하라.
6. 유사성/차별성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라.

1. 비유를 선정하라

선정된 수업내용이 적합한 비유를 포함하고 있다면 절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쉽게 이루어진다. 교재에 포함된 비유는 적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재가 비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비유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설계자는 적합한 비유를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양 서적과 전문 서적 등을 통하여 폭넓은 정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비유를 판단하고 선정하는데 논제(topic)와 전달수단간(vehicle)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속성간의 유사성과 관련성의 유사성의 질과 수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적 유사성(relational similarities)과 속성적 유사성(attributinal similarities)이 많을수록 양자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참인 반면, 한 가지 또는 소수의 공유된 유사성(shared similarities)은 좋은 비유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지는 저장소이다”라는 예를 생각해 보자. 전형적으로, 속성에 있어 차이는 크기, 형상, 색상, 그리고 물질 등이 포함된다. 위의 비유가 좋은 이유는 비교 대상 두 가지 모두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에너지는 전력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공유된 유사성 때문이다.

공유된 유사성은 학생들이 전달수단(vehicle)을 숙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친숙성(familiarity)의 기준에 비추어서도 중요하다. 논제(topic)의 심상(imagery) 또한 비유의 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유의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신기성(novelty)이다. 그러나, 신기성, 친숙성, 그리고 적합성간의 상승효과는 매우 희박하다. 즉, 매우 신기한 비유는 적합성을 희생시킬 수 있고, 전달수단과 논제가 매우 밀접한 적합성을 가진 비유는 거의 신기성이 없으며, 따라서 실제로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신기성이 높은 비유는 대체로 시각화하는 것이 어렵다.

왼쪽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프레임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속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열거하게 되면, 적합한 비유를 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교수-학습적 잠재성 또한 쉽게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너무 큰 차별성이 있을 경우, 다른 비유를 선정해야 한다.

	재판관	하나님
유사속성 관련성 차별속성	재판	판결
	불의한 재판관	의와 선의 재판관
	아버지	하나님
유사속성 관련성 차별속성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죄인
	기다림	찾아 오심
	용납	사유(죄없이함)

2. 비유를 강조하라

일단 교수-학습을 위해 비유가 선정되면, 수업 중에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활용되는 비유, 즉 핵심 비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모든 학생이 전달수단의 속성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인 논제를 이해하는 데 선행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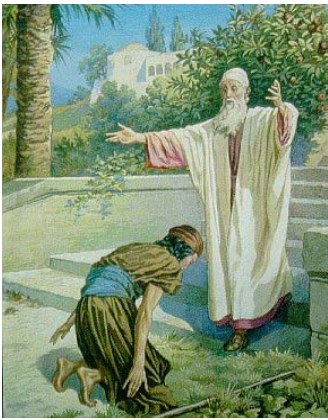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선행학습 정도가 부족하거나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제시되는 비유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 비유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도록 주의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재판관의 속성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 돈을 주고받으면서 판결을 매점매석하는 탐관오리로 설명될 수 있고, 아버지의 속성은 기다려 주시는 분,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신 분, 자애롭고 넉넉한 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맥락이 확립되도록 보장하라

비유를 해석하는데 있어, 전달수단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 맥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 수업 중에 아무런 맥락없이 비유만을 활용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맥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꼭 맥락을 제시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재판관(눅18:1-14)의 비유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권력의 시녀로서 그 역할을 행사할 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특히 백성들이 헤롯왕을 “여우”라고 칭하면서 그의 정치 행태를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적 정보가 제공될 때 비유가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심상 정보를 제공하라

비유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더욱 쉽게 이해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가능하면 비유의 내용을 포함하는 심상 정보(imagery)를 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전달 수단이 풍부한 이미지를 담고 있을 경우, 반드시 비유의 내용을 심상화해 보도록 요구하는 지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 보세요”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상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옆의 심상 정보는 탕자가 돌아 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 주는 상황을 시각화해 주고 있다. 이런 정보가 비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유사성/차이점을 강조하라

비유는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건 또는 절차와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 중에 비유에 사용된 이미 알고 있는 것(전달수단)과 알아야 할 것(논제)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강조되지 않게 되면, 학생이 지니고 있는 오개념은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거나 심지어 더욱 발전될 수 있다. ‘비유의 과대확장’이라는 이러한 오개념은 고차적 수업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과다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전달수단과 논제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별해서 강조해야 한다.

	보화	하나님 나라
유사속성	귀하다	귀하다
관련성	감추어져 있음	감추어져 있음
차별속성	일시적임	영원함

단계 1에서 제시한 그림을 이용해서 교사는 수업 중에 유사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생과 함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탐구할 수 있다. 옆의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비유를 활용하기 위해 단계 1의 그림을 보완한 경우이다.

6. 시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라

위에서 제시한 그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탐구하고, 그 결과 완성된 그림을 학생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대부분의 인지전략과 마찬가지로, 수업 중에는 비유와 함께 다른 전략들도 함께 활용된다. 대부분의 유용한 비유는 구체적인 전달수단과 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양자간의 심상을 맺는 일은 학생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업 중에 비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심상을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비유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비유	주제	논제	전달수단	맥락	전달내용	학생느낌
하나님의 나라와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밭에 감추어 둔 보화	당시는 전쟁 등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화를 땅에 묻음. 이 보화들은 이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자의 몫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사회적 관례였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보화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의미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 놀라웠다.

참 고 문 헌

- 강이철(2001). 코스웨어 설계를 위한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국민일보: 기독교용어(www2.kmib.co.kr/wordview/wordview.asp?f=1994070503012202.txt).
- 김근수/최갑종 역(1993). 예수님의 비유(S. Kistemaker: The Parables of Jesus). 기독교문서선교회.
- 김성녀 편역(1996).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존 화이트 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김진우 역(1994). 주님의 비유와 은유(C. Morgan: Parables and Metaphors of Our Lord). 생명의 말씀사.
- 명종남 역(1988). 예수님의 비유: 해석원리와 적용(R. H.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새순출판사.
- 서창호(2003). 교육자 예수, 교육철학연구(제 3호). 96-133.
- 서창호 www.edu.co.kr/john316.
- 신득렬(2001). 교육사상사. 서울: 학지사.
- 윤승은(2003). 예수님의 비유들 연구 - 헬라이어주석. 성서연구원.
- 이동원(1983).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 그리스도의 비유 강해설교. 나침반 출판사
- 이순경(1973). 하나님 나라 비유. 기독교문사.
- 이장립 역(1977). 주님의 비유(R. C. Trench: Notes on the Parables of Our Lord). 생명의 말씀사.
- 이종태 역(1982). 교회학교 교수학습(Teaching Techniques. E.T.T.A. 펴냄). 생명의 말씀사.
- 이한수(1991). 비유와 해석학. 한국로고스연구원
- 전경연(1980). 예수의 비유: 해석학적 연구, 서울: 종로서관.
- 정대현(2002). 논평: 종교간 대화의 교훈. 계간 새길 이야기. 여름 5호.
- Gordon, W. J. J. (1961). *Synecitics*. New York: Harper & Row.
- Gordon, W. J. J., & Poze, T. (1972). *Strange and familiar*. Cambridge, MA: SES Associates.
- Gordon, W. J. J., & Poze, T. (1980a). SES synectics and gifted education today. *Gifted Child Quarterly*, 24, 147-151.
- Gordon, W. J. J., & Poze, T. (1980b). *The new art of the possible*. Cambridge, MA: Porpoise Books.
- Horne, H. H.(1990). 예수의 교육원리-위대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고봉환 역). 서울: 도서출판 요나(원서 1920년 발행)
- Hunter, A. M.(1971). *The Parables Then and Now*. London: Westminster Press.
- West, C. K., Farmer, J. A., & Wolff, P. M. (1991). *Instructional Design: Implications from Cognitive Science*.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